

五臟穴의 五行配合에 關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東新大學校 韓醫科大學 兼任教授²

尹暢烈¹ · 李正泰²

關於五臟穴之五行配合的研究

尹暢烈¹ · 李正泰²

大田大學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東新大學 韓醫科大學 兼任教授²

通過對五臟穴的五行配合的研究, 得出如下結論。

對陰經五臟穴的井榮經合配以木火土金水, 是出于五臟穴的脈氣之出溜注行入之流動, 显现为木火土金水之五行屬性的緣故; 而對陽經五臟穴配以金水木火土, 則是出于陰經和陽經各自的五臟穴形成夫妻關係的緣故, 即陰經五臟穴的井榮經合分別属于乙木、丁火、己土、辛金和癸火, 故按夫妻相合之原理, 陽經便應配以庚金、壬水、甲木、丙火和戊土, 最终成为金水木火土之五行属性。陰經和陽經的五臟穴之天干配合原理中, 不仅凝聚着母子相生原理和夫妻相克原理, 还包含着相生中复有相克、相克中复有相生的原理。

陰經五臟穴之始井穴之所以木作为其起始, 而陽經之始井穴则以金作为其起始, 其中蕴涵着臟腑为體、經脈为用的陰體陽用及陽體陰用之原理。陰經和陽經的五臟穴的五行属性中, 隐含着十分丰富多样的金火交易之原理。始于四肢末端、合入肘膝关节的五臟穴的流走方式中, 包含着陽受氣於四末、进而返本還元的陽氣回歸之原理。

在五臟为五臟穴, 在六腑则为六臟穴的原因, 乃是缘于六腑陽經各多出一个三焦原氣聚會的原穴之故。对于原穴的五行属性, 內經之诸多注释家都配以木性, 但从五運化为六氣时多出一个少陽相火、五臟对应的六腑则多出一个三焦相火之原理来看, 原穴之五行属性当配以火性方为妥当。

關鍵詞 : 井榮經合, 五臟穴, 原穴, 陰體陽用, 陽體陰用, 返本還元, 相生, 相克。

I. 序 論

十二經脈 五臟穴의 五行屬性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五行針法은 그 치료효과가 뛰어나다. 五臟穴은 局部의 病證을 치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臟腑의 虛實을 補瀉하여 人體의 生理活動을 영위하는 중추기관인 臟腑의 病證을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이 五臟穴이 일반혈과 구별되는 특징이며 全身性 病證을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중요경혈이 되는 이유이다.

『靈樞本輸』에 陰經의 井穴에 木을 配屬하고 陽經의 井穴에 金을 配屬한다고 처음 언급하였고 이를 계승하여 『難經·六十四難』에서는 十干의 夫婦五行配合을 援用하여 陰經의 井榮經合에는 木火土金水を 배합하고 陽經의 井榮經合에는 金水木火土를 배합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러나 왜 이렇게 배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설명한 글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저자는 이를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해석해보고자 하며 原穴의 의미와 이에 대한 오해배속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교신저자 : 윤창열, 대전시 동구 용운동 대전대학교
한의학대학 원전학교실
E-mail : yoony@dju.ac.kr Tel : 042-280-2601
접수일(2011년 2월 12일), 수정일(2011년 3월 22일)
게재확정일(2011년 3월 21일)

II. 本 論

1. 難經의 배합내용

먼저 六十四難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六十四難曰 十變에 又言陰井木 陽井金이오 陰榮火 陽榮水오 陰俞土 陽俞木이오 陰經金 陽經火오 陰合水 陽合土라하여 陰陽이 皆不同하니 其意는 何也오(64難에 이르기를 十變이라는 옛 의서에서 또 말하기를 陰經의 井穴은 木에 속하고 陽經의 井穴은 金에 속하며, 陰經의 榮穴은 火에 속하고 陽經의 榮穴은 水에 속하며, 陰經의 俞穴은 土에 속하고 陽經의 俞穴은 木에 속하며, 陰經의 經穴은 金에 속하고 陽經의 經穴은 火에 속하며, 陰經의 合穴은 水에 속하고 陽經의 合穴은 土에 속한다고 하여 陰經과 陽經의 五行配合이 모두 다르니 그 뜻은 왜 그렇습니까?) 然이라. 是는 剛柔之事也라. 陰井은 乙木이오 陽井은 庚金이니 陽井庚에 庚者는 乙之剛也오 陰井乙에 乙者는 庚之柔也라. 乙爲木故로 言陰井木也오 庚爲金故로 言陽井金也니 餘皆倣此니라 (답이라. 이것은 陰陽配合의 일이다. 陰經의 井穴은 乙木이 되고 陽經의 井穴은 庚金이 된다. 陽經 井穴이 庚인데 庚은 乙의 남편이 되고 陰經 井穴이 乙인데 乙은 庚의 아내가 된다. 乙이 兄弟五行에서 木이기 때문에 陰經의 井穴이 木이 된다고 말하고 庚이 兄弟五行에서 金이기 때문에 陽經의 井穴이 金이 된다고 말한 것이니 나머지 榮穴, 俞穴, 經穴, 合穴도 모두 이의 原理에 따른다.)”²⁾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五臟穴의 五行配合

	井	榮	俞	經	合
陰經	乙木	丁火	己土	辛金	癸水
陽經	庚金	壬水	甲木	丙火	戊土

2) 윤창열, 김용진.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869.

63難에서는 井榮臉經合의 五臟穴이 모두 왜 井에서 시작하는가를 묻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井者는 東方春也니 萬物之始生이라 諸岐行喘息과 蛭飛蠕動의 當生之物이 莫不以春生이라 故歲首는 始於春하고 日數는 始於甲이라 故以井爲始也(井은 脈氣가 처음 시작하는 곳이므로 東方과 봄에 배속되니 萬物이 처음 생겨나는 곳이다. 모든 기는 벌레가 기어가고 부리로 숨쉬는 새가 숨쉬고 장구벌레가 날아오르고 꿈틀거리는 벌레가 움직이는 등의 생명을 가진 모든 동물들이 봄에 생겨나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일년의 머리는 봄에서 시작하고 날짜를 세는 것은 甲에서 시작하는지라. 따라서 井穴로써 시작을 삼는 것이다.)”³⁾

65難에서는 所入爲合에 대해 질문하고 “合者는 北方冬也니 陽氣入藏故로 言所入爲合也라(合穴은 北方에 속하고 겨울에 配屬되니 陽氣가 들어가 갈무리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合이 된다고 말한 것이다.)”⁴⁾라고 하였다. 이상의 설명은 脈氣가 始發하는 井穴은 春木이 되고 脈氣가 入藏하는 合穴은 冬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井榮臉經合의 脈氣의 흐름을 春, 夏, 長夏, 秋, 冬에 配合할 수가 있어 각각 木火土金水를 配屬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陰經의 五臟穴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지만 陽經의 五臟穴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하다.

2. 配合原理 分析

五臟穴의 五行配合에는 相生에 의한 母子配合原理, 相克에 의한 夫婦配合原理, 陽體陰用과 陰體陽用의 原理, 金火交易의 原理, 返本還元의 原理 등 다양한 이론들이 녹아들어 있는데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윤창열, 김용진.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863.

4) 윤창열, 김용진.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877.

1) 母子와 夫婦配合 속의 相生, 相克原理

井穴이 五臟穴의 시작이라면 五行의 配合도 같아야 하는데 陰經의 井穴에는 木을 배속하고, 陽經의 井穴에는 金이 배속하여 각기 다른 것은 왜 그러한가? 여기에는 夫婦配合의 原理가 있기 때문이다. 五臟은 陰에 배속하고, 六腑는 陽에 配合되니 서로 表裏가 되는 五臟과 六腑는 서로 夫婦의 관계가 성립한다. 즉 肝이 아내가 되고 膽이 남편이 되며, 心이 아내가 되고 小腸이 남편이 되는 것으로 나머지도 이와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뻗어나간 經脈도 서로 陰經, 陽經으로 相合하게 되고 각각의 井榮腧經合의 五臟穴도 또한 각각 夫婦의 관계를 이루게 되며 井榮腧經合의 先後는 母子의 관계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相生, 相克과 夫婦, 母子의 관계가 숨겨져 있는 내용이 十干이다. 十干은 十天干이라고도 하니 天道의 變化를 10개의 용어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天道의 중심은 5이고 5에 각각 陰陽이 있으니 $5 \times 2 = 10$ 의 변화는 天道가 변화하는 핵심을 드러낸다. 天干의 甲乙은 木이고 丙丁은 火이며 戊己는 土이고 庚辛은 金이며 壬癸는 水이니 우리가 兄弟五行이라 부르는 10간의 五行配屬이다. 이는 또한 木에서 시작되어 水에서 끝나는 相生으로 전개되는 天道의 자연변화 질서이다.

陰經의 井榮腧經合에 木火土金水를 배속한 것은 이 原理에 따른 것이다. 陰經이기 때문에 陰干인 乙丁己辛癸를 취했고 脈氣의 상태에 따라 井에 木, 榮에 火, 腧에 土, 經에 金, 合에 水를 배속하니 자연스럽게 井에 木인 乙, 榮에 火인 丁, 腧에 土인 己, 經에 金인 辛, 合에 水인 癸가 배속된다.

表裏相合하는 臟腑와 經脈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夫婦의 관계를 이루며 다시 陰經, 陽經의 각각의 五臟穴도 夫婦의 관계를 이룬다. 十干의 夫婦五行配合는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이다. 이러한 배합에는 3가지의 原理가 내재해 있는데 첫째 모든 것이 陰干과 陽干의 배합관계이다. 예를 들어 甲이 陽干이고 己가 陰干이며, 乙이 陰干이고 庚이 陽干이 되는 것 등이다. 이는 陰陽相合之事이고 剛柔相濟之事인데 바로 夫婦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原理에 의해 陰經의 井榮腧經合에 乙丁己辛癸를 배속하였다면 陽經의 井榮腧經合에는 夫婦관계에 의해 乙의 合인 庚, 丁의 合인 壬, 己의 合인 甲, 辛의 合인 丙, 癸의 合인 戊가 자연스럽게 배속되어 五臟穴에 각각 庚壬甲丙戊가 配屬되니 이를 兄弟五行屬性으로 나타내면 金水木火土가 되니 陽經의 井榮腧經合에 金水木火土가 배속되는 것이다. 둘째 夫婦五行配合관계는 相克배합이 되니 庚金이 克乙木하고 壬水가 克丁火하는 것 등이다. 셋째 이러한 相克관계는 모두 陽干이 陰干을 克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에 있어 相生과 相克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相生속에 相克이 있고 相克속에 相生이 있는 것이다.

天地는 만유생성의 주체이고 작용은 우주의 질서로 나타난다. 『淮南子』에서 “上下四方을 曰宇오 往古來今을 曰宙라”고 하여 宇宙는 곧 공간과 시간을 의미한다. 즉 天地의 작용은 시간과 공간으로 펼쳐진다. 시간적인 縱의 질서는 주로 母子관계를 이루어 相生으로 나타나고 공간적인 橫의 질서는 주로 夫婦관계를 이루어 相克으로 나타난다. 이는 十干의 兄弟五行配屬과 夫婦五行配屬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甲乙木, 丙丁火, 戊己土, 庚辛金, 壬癸水의 변화는 전후가 母子관계를 이루며 相生으로 전개되지만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는 서로 對待關係 속에서 夫婦관계를 이루며 相克의 관계를 이룬다. 그렇지만 자연의 변화는 相克 속에 相生이 있고 相生 속에 相克이 동시에 존재한다. 乙木과 庚金이 相克關係 속에서 夫婦를 이루면 乙庚金이 되어 金의 자식을 생하고, 丁火와 壬水가 상극 속에서 夫婦를 이루면 丁壬木이 되어 木의 자식을 생하고, 甲木과 己土가 상극 속에서 夫婦를 이루면 甲己土가 되어 土의 자식을 생하고, 丙火와 辛金이 상극 속에서 夫婦를 이루면 丙辛水가 되어 水의 자식을 생하고, 戊土와 癸水가 상극 속에서 夫婦를 이루면 戊癸火가 되어 火의 자식을 생한다.

相克의 配合 속에서 자식을 낳는 것은 곧 生이니 相生이 되고 所生之子의 五行순서가 金木土水火가

되니 다시 相克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 五臟穴의 相生·相克關係

	井	榮	俞	經	合	上下 關係	夫婦 生子
陽經	庚金	壬水	甲木	丙火	戊土	相 克	
陰經	乙木	丁火	己土	辛金	癸水		
前後 關係	相生 —————→					相 生	
夫婦 配合	乙庚 金	丁壬 木	甲己 土	丙辛 水	戊癸 火		
前後 關係	相克 —————→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五臟穴의 十干五行配合에는 母子의 相生原理와 夫婦의 相克原理 뿐만 아니라 相生 속에 들어있는 相克과 相克 속에 들어있는 相生の 이치가 숨겨져 있다.

여기서 한마디 더 부연한다면 甲己土, 乙庚金, 丙辛水, 丁壬木, 戊癸火의 夫婦配合이 비록 相克의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相克이라는 것이 相生の 바탕이며 창조적 본체이며 剛柔相濟의 의미가 내재해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64難의 첫 대답인 “是는 剛柔之事也라”고 한 중요 의미인데 夫道는 剛하고 婦道는 柔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 天地의 변화질서는 獨陽은 不生하고 獨陰은 不長하니 陰陽剛柔가 相合하여 相反相成하며 相制相生하며 相因相濟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陰經과 陽經의 각각의 五臟穴이 夫婦關係를 이루어야만 하는 중요 이유인 것이다.

2) 陰體陽用 陽體陰用 原理

陰經의 五臟穴의 시작인 井穴에 木을 配合하고 陽經의 五臟穴의 시작인 井穴에 金을 配合하는 이유에는 陰體陽用과 陽體陰用의 原理가 내재해 있다.

陰體陽用이란 본체가 陰이면 작용은 陽으로 하고, 陽體陰用이란 본체가 陽이면 작용은 陰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體用은 陰陽이 반대가 된다는

것이다. 五臟六腑의 體用을 예로 들어보면 五臟은 藏精氣而不瀉하니 體陰이 되고, 六腑는 傳化物而不藏하니 體陽이 된다. 그렇지만 五臟의 작용은 七神을 藏하여 上七竅로 작용하니 用陽이 되고 六腑의 작용은 七衝門을 통과하여 下降을 위주로 하니 用陰이 된다. 이처럼 陰과 陽은 독립하여 작용하지 않고 互根하고 있는데 黃元御는 『素靈微蘊』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陰陽互根이라 五臟陰也로대 而陽神藏焉하니 非五臟之藏이면 則陽神飛矣오 六腑陽也로대 而陰精化焉 하니 非六腑之氣면 則陰精竭矣라. 蓋陰以吸陽故로 神不上脫하고 陽以煦陰故로 精不下流라 ……陰在內 하니 陽之守也오 陽在外하니 陰之衛也니 陰能守則陽 秘於內하고 陽能衛則陰固於外라(陰과 陽은 서로 뿌리 하고 있다. 五臟은 陰이지만 陽의 7신이 저장되어 있으니 五臟의 갈무리하는 작용이 아니면 陽神은 날아가 버릴 것이고 六腑는 陽이지만 陰精을 화생하니 六腑의 氣가 아니면 陰精이 고갈된다. 대체로 陰인 五臟이 陽을 흡수하여 갈무리하기 때문에 神이 위로 빠져나가지 않고 陽인 六腑가 陰精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精이 아래로 흘러나가지 않는 것이다. 內經에서 陰은 안에 있으니 陽을 지키는 존재이고 陽은 밖에 있으니 陰을 호위하는 존재니 陰인 五臟이 잘 지키면 陽神이 안에서 잘 갈무리 되고 陽인 六腑가 잘 호위하면 陰精이 밖에서 견고하게 된다)”⁵⁾ 이는 陰陽의 關係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으로 陰陽의 互根性 뿐만 아니라 體用관계 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五臟六腑는 體가 되고 經脈은 用이 되니 脈氣가 시작 하는 陰五臟의 井穴은 陽인 木으로 작용을 시작하고 陽六腑의 井穴은 陰인 金으로 작용을 시작하는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 “水火者是 陰陽之徵兆也오 金木者是 生成之終始也라”⁶⁾고 하였다. 이는 五行에서 水火가 體가 되고 金木이 用이 된다는 의미로써 五臟의 用인 經脈의 井穴이 金木으로 시작하는 주된 이유이다.

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65.

6)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24.

葉霖은 『難經正義六十四難』에서 “人身經脈은 起於井穴이라 五臟屬陰하니 從春夏而至秋冬이라 故陰井爲木이오 ……六府屬陽하니 從秋冬而至春夏라 故陽井爲金이라”⁷⁾고 注를 달고 있다. 이는 陰인 五臟은 발생을 主하여 木으로 시작하고 陽인 六腑는 수렴을 主하여 金으로 시작한다는 것으로 陰은 陽으로 시작하고 陽은 陰으로 시작한다는 體用相反의 原理인 것이다.

3) 金火交易의 原理

金火交易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五臟穴의 五行과 관련된 내용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陰經의 五臟穴이 木火土金水로 전개되고 있는데 金火交易의 궁극의 목적은 木火로 분열된 것을 金水로 통일하는데 있는 것이다.

둘째 陽經의 五臟穴이 金水木火土로 전개되는데 金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봄·여름 분열의 목적이 가을·겨울의 통일에 있듯이 만물이 시작할 때부터 금기운을 가지고 생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는 생명창조의 목적이 金으로 수렴하는데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木기운이 시작할 때 天干에서 乙木이 乙金으로 변화하여 金의 기운을 가지고 시작하고, 地支에서는 卯木이 卯酉陽明燥金으로 변화하여 金기운을 가지고 시작한다. 金으로 시작하여 土로 끝나는 또 다른 예는 八卦에서 나타난다. 八卦의 창조순서는 乾兌離震巽坎艮坤인데 乾陽金, 兌陰金으로 시작하여 艮陽土, 坤陰土로 끝이 나니 陽經 五臟穴과 시종이 같다.

셋째 井穴이 乙庚金에서 시작하고 合穴이 戊癸火로 끝나는 것도 金이 火를 싸고 있는 이치가 들어 있는데 역시 金火交易의 原理이다.

넷째 井穴이 乙庚金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 의미가 있다. 위에서 八卦의 시작이 乾金, 兌金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乾은 하늘로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면서 지구를 싸고 있는데 만물창조의 시발점이다. 우리 몸에서도 五臟六腑 중에서 肺金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肺主皮毛하여 金에 속하는 肺와 皮膚가 가장 높이

있으면서 우리의 온몸을 싸고 있는데 역시 金火交易의 原理이다. 이러한 原理가 낙서에서 4·9 金이 南方에 위치해 있는 이유이다.

五行에서 水火는 體가 되고 木金은 用이 된다. 十二 經脈의 운행을 살펴보면 手太陰肺經, 手陽明大腸經의 金에서 시작하여 足少陽膽經, 足厥陰肝經의 木에서 끝나 金木이 用이 되는 象이 나타나 있으며 五臟穴의 井穴, 榮穴도 乙庚金, 丁壬木으로 金木에서부터 시작한다. 이처럼 모든 만물은 현실적으로 木에서 시작하지만 이면에 金의 기운을 가지고 만물의 생명이 시작되니 이것이 또한 金火交易의 原理인 것이다.

4) 返本還元의 原理

返本還元이란 본원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이다. 五臟과 軀幹은 본원이 되고 사지말단은 지엽이 된다. 五臟穴의 流走는 사지말단에서 求心性, 向心性으로 운동을 하니 이는 上焦의 出氣作用과 肺의 宣發作用에 의해 體表와 四肢末端에까지 布散되었던 陽氣인 衛氣가 다시 根本으로 되돌아가는 운동이다. 四肢는 諸陽之本으로 陽氣가 충만하고 陽受氣於四末의 原理에 의해 사지말단의 陽氣는 五臟穴을 통해 내부 臟腑로 回歸해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일상에서 광합성 작용에 의해 형성된 당분이 체관부를 통해 뿌리로 돌아가는 이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丁彰炫은 이와 관련하여 “五臟은 精을 장하는 것이 최종목표임으로 水로 끝나고 六腑는 水穀을 受納하고 運化하는 것이 최종목표임으로 土로 끝난다. 五臟은 일단 펼쳤다가 갈무리하고 六腑는 일단 수렴했다가 펼치는 양상을 보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라는 점이다. 五臟은 최종목표가 精을 갈무리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단 펼치는 것이다. 六腑는 최종 목표가 水穀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여 전신에 공급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단 수렴하는 것이다.”⁸⁾라 하였는데 臟腑의 기능과 관련하여 참고 할 가치가 있다.

7)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11.

8) 丁彰炫, 難經의 五行生克理論 活用に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 원전학회지, 17(1). 2004. p.30.

3. 原穴의 오행배속

『靈樞·九針十二原』에서 말하는 十二原穴은 五臟의 原穴이 각각 양쪽에 있으니 10개의 原穴이 되고 여기에 膏之原鳩尾와 肓之原腓臑(張介賓은 臍下一寸半의 氣海穴로 보았고 丹波元簡은 臍傍二寸의 天樞穴로 보았다)을 합하여 12개가 되고, 『難經·六十六難』에서 말하는 十二原穴은 12經脈에 있는 하나씩의 原穴을 합하여 十二原穴이라 말하여 의미가 좀 다르다. 五臟의 原穴은 五臟穴의 腧穴과 일치하고 六腑의 原穴은 五臟穴외에 腧穴과 經穴 사이에 별도의 原穴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靈樞·九針十二原』에서는 “五臟五腧니 五五二十五腧오 六腑六腧니 六六三十六腧라”고 하였다. 즉 五臟의 五臟穴은 모두 합하면 25개의 經穴이 되고 六腑의 五臟穴은 原穴까지 합하여 모두 36개의 經穴이 된다는 의미이다.

왜 五臟의 經脈에는 五臟穴만 있고 六腑의 經脈에는 五臟穴외에 原穴이 하나 더 존재하는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原穴의 의미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五行配屬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1) 原穴의 의미

原氣는 人體에서 가장 根本이 되는 氣로 生命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原氣는 元氣라고도 쓰는데 腎中精氣에서 化生되며 그 화생되는 장소를 특히 命門이라고 부르니 이를 『難經·三十六難』에서는 “命門者는 諸神精之所舍오 原氣之所繫也라”고 하였다. 原氣의 기능은 人體의 生長발육을 推動하고 臟腑組織기관을 활동을 推進하며 특히 十二經脈을 운행시키는 原動力이 된다. 原氣는 命門에서 來源하여 三焦의 길을 따라 作用함으로 『難經·三十八難』에서 三焦를 “原氣之別焉이니 主持諸氣라”고 하였다. 이 뜻은 命門에 근원한 原氣가 三焦의 作用을 통해 五臟六腑와 十二經脈에 각각 개별적으로 작용하는데 全身의 氣機와 氣化作用을 하는 실질적 주체는 三焦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되어 『難經·六十六難』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十二經이 皆以俞爲原者는 何也오 然이라 五臟俞者는 三焦之所行이오 氣之所留止라. 三焦所行之俞爲

原者는 何也오 然이라 臍下腎間動氣者는 人之生命也오 十二經之根本也니 故名曰原이라 三焦者는 原氣之別使也니 主通行三氣하고 經歷於五臟六腑라 原者는 三焦之尊號也니 故所止輒爲原이라(12經脈이 모두 수혈로 原穴을 삼는 것은 어째서 입니까.)⁹⁾ 대답이라. 五臟의 俞穴은 三焦의 氣運이 행하는 곳이요 三焦의 氣가 머무는 곳이다. 三焦가 행하는 俞穴을 原穴로 삼는 것은 어째서인가. 대답이라. 배꼽아래 丹田의 腎間動氣는 사람의 生命과 12經脈의 根本되는 氣運이기 때문에 原이라고 부른다. 三焦는 原氣가 여러 經脈에 구별되어 작용하는 것이니 상중하 三焦의 기운을 통행하고 五臟六腑의 俞穴을 지나는 것을 주장한다. 原이라는 것은 三焦를 높여 부르는 호칭이니 三焦의 氣運이 머무는 곳은 즉 原穴이 된다.)¹⁰⁾ 이 뜻은 臍下의 腎間動氣가 原氣가 되고 三焦는 이 氣運을 품부받아 행하기 때문에 原氣之別使가 되는데 徐靈胎는 이를 “根本原氣가 分行諸經故로 曰別使라”¹¹⁾고 요점적으로 언급하였다. 12經脈은 모두 三焦의 氣運을 받아 운행하는데 이 氣運이 특별히 집중하여 모여 있는 곳을 原穴이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原은 三焦에 대한 존칭인데 특히 그 根本을 들어서 표현한 것이다. 이를 徐靈胎는 『難經經釋』에서 “分言之則曰三焦오 從其本而言之則曰原이라. 故云尊號라 三焦는 爲原氣別使니 則三焦氣所在는 卽原氣所在라”¹²⁾고 하였다. 十二經脈을 推動하는 근본적인 힘이 原氣이고 이는 三焦를 통해 각 經脈에 별도로 나뉘어 작용하며 이 氣運이 특히 집중되어 있는 經穴이 原穴이 된다는 뜻이다.

2) 原穴의 五行配屬

五臟의 五臟穴이 5개인데 반해 六腑의 五臟穴이 原穴을 더하여 6개가 되는 이유는 하늘의 五運이 지구에 집중할 때 지축의 경사 때문에 無根之火인 相火가 하나 더 불어나서 六氣가 되고 五臟이 다섯

9)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五臟의 陰經만 수혈로써 原穴을 삼는다.

10) 윤창열, 김용진.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883

11) 徐靈胎. 難經經釋. 臺北. 五洲出版社. 1969. p.47.

12) 徐靈胎. 難經經釋. 臺北. 五洲出版社. 1969. p.47.

개이나 三焦相火가 하나 더 붙어나서 六腑가 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다. 그래서 陰經의 五臟穴이 陽經에서는 六臟穴이 되는 것이다.

五臟에서는 俞穴이 原穴이 되고 俞穴은 土穴이 되니 五臟에서 原穴의 五行屬性을 土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六腑에서 原穴은 “所過爲原”이 되니 俞穴을 지나 經穴과의 사이에 존재한다.

六腑原穴의 五行屬性에 대해 馬蒔는 『靈樞·本輸』의 膀胱經의 原穴에 대해 “過於束骨하니 在外側大骨之下赤白肉際陷中하니 爲原木이라”¹³⁾고 했고, 張介賓은 “陽經之原은 自輸而過하야 本爲同氣니 亦當屬陽木이라”¹⁴⁾고 하였으며, 黃元御도 “當與臟穴로 俱屬木也라”¹⁵⁾고 하여 세 사람 모두 木에 배속하였다. 이는 原穴이 俞穴 다음에 위치함으로 俞穴의 五行과 氣運이 같을 것이라 추정하여 木에 配合한 것이다.

저자는 이와는 달리 原穴의 五行屬性은 火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難經·六十二難』에서 “府者는 陽也니 三焦行於諸陽이라 故置一俞하야 各曰原이라 府有六者는 亦與三焦로 共一氣也라(六腑의 經脈은 陽經이니 三焦의 氣運이 모두 陽經에 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혈을 더 두어서 原穴이라 한 것이다. 六腑의 經脈에 原穴이 하나 더 있어 여섯 개인 이유는 또한 三焦의 氣運과 더불어 같은 氣運이기 때문이다)”¹⁶⁾라고 하였다.

여기서 분명히 六腑의 原穴이 三焦之氣와 동일한 氣運이라 하였다. 三焦는 少陽相火를 주함으로 六腑의 原穴은 마땅히 火穴이 되어야 한다. 原穴이란 三焦之氣가 집중되어 모여있는 穴이기 때문이다. 하늘의 五運이 땅에서 少陰君火이외에 少陽相火가 하나 더 붙어나서 六氣가 되고 五臟六腑에서 小腸火이외에 三焦相火가 하나 더 붙어나서 六腑가 되듯 六腑의 五臟穴도 三焦相火의 氣運이 집중되어 있는 原穴이 하나 더 붙어나서 六臟穴이 되는 것은 자연스런 이치인

것이다. 따라서 原穴의 五行屬性은 火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다음에 위치하는 經穴의 五行속성이 火가 되니 木火火土의 순서는 六氣의 主氣의 순서가 木火火土金水로 진행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六氣에 君火, 相火의 2개의 火가 있고 六腑에 小腸火, 三焦火의 2개의 火가 있듯이 六腑의 六臟穴에도 2개의 火가 있게 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III. 結 論

五臟穴의 五行配合에 관해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陰經의 五臟穴인 井榮輸經에 木火土金水を 配合하는 이유는 五臟穴 脈氣의 흐름인 出溜注行入이 木火土金水の 五行의 屬性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 陽經의 五臟穴에 金水木火土를 配合하는 것은 陰經, 陽經의 각각의 五臟穴이 夫婦관계를 이루기 때문인데 陰經의 五臟穴 井榮輸經이 乙木 丁火 己土 辛金 癸火가 됨으로 夫婦相合의 原理로 庚金 壬水 甲木 丙火 戊土가 配合되어 金水木火土가 된다.
3. 陰經, 陽經 五臟穴의 天干配合의 原理 속에는 母子의 相生原理와 夫婦의 相克原理뿐만 아니라 相生속에 다시 相克이, 相克속에 다시 相生의 原理가 含蓄되어 있다.
4. 陰經 五臟穴의 시작인 井穴이 木으로 시작하고 陽經의 井穴이 金으로 시작하는 이치에는 臟腑가 體가 되고 經脈이 用이 되는 陰體陽用과 陽體陰用의 原理가 들어 있다.
5. 陰經, 陽經 五臟穴의 五行屬性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金火交易의 原理가 내재되어 있다.
6. 四肢末端에서 起始하여 肘膝關節에서 合入하는 五臟穴의 流走에는 陽受氣於四末하여 返本還元하는 陽氣回歸의 原理가 들어 있다.

13) 張隱庵, 馬元臺, 黃帝內經靈樞. 서울. 정보사. 1975. p.19.
 14)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정보사. 1982. p.252.
 15)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93.
 16) 윤창열, 김용진.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856

7. 五臟의 五腧穴이 六腑에서 六腧穴이 되는 이유는 六腑의 陽經에는 三焦의 原氣가 집중하는 原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8. 原穴의 五行屬性을 內經의 주석가들이 木이라 하였으나 五運이 六氣로 될 때 少陽相火가 하나 더 불어나고 五臟이 六腑로 될 때 三焦相火가 더 불어나서 되듯이 原穴의 五行屬性은 火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1. 徐靈胎. 難經經釋. 臺北. 五洲出版社. 1969. p.47.
2.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11.
3. 윤창열, 김용진.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856, 863, 869, 877, 883
4. 張介賓. 張氏類經. 서울. 정보사. 1982. p.252.
5. 張隱庵, 馬元臺. 黃帝內經靈樞. 서울. 정보사. 1975. p.19.
6. 丁彰炫. 難經의 五行生克理論 活用に 대한 考察.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7(1). 2004. p.30.
7. 홍원식.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동양의학연구원. 1985. p.24.
8.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493.
9. 黃元御. 黃元御醫書十一種(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265.